



무승부라니... 김신욱, 이창용, 김남일, 김치우 등 축구대표팀이 5일(한국시간) 레바논 베이루트 카밀사문 스포츠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4브라질월드컵 최종예선 한국-레바논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로 경기를 마친 뒤 그라운드를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축구 월드컵 본선 직행 안갯속

브라질행 최종예선 6차전 레바논과 1대1 무승부

남은 우즈벡·이란전 두 경기 비기면 변수 복잡

김치우의 왼발이 패배 위기의 한국을 구해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약체' 레바논에 '진짜 무승부'를 거두면서 8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향해 쉽지 않은 길을 남겨줬다. 조 1위를 되찾기는 했지만, 본선행 티켓을 향한 접전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5일(한국시간) 레바논 베이루트의 스포츠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레바논과의 2014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6차전에서 0-1로 뒤지던 후반 추가시간 김치우(서울)의 극적인 프리킥 동점골에 힘입어 1-1로 비겼다.

경기에서 간신히 무승부를 거두는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남기면서 '최강희호'는 남은 2차례 홈경기에서 부담을 안게 됐다. '6월 3연전'의 첫 경기인 레바논 원정에서 나승을 거두고 홈경기를 수월하게 풀어나갈 구상이었으나, 계획이 꼬이고 만 것이다. 특히 이날 카타르를 1-0으로 격파한 3위 이란이 한국, 우즈베키스탄을 승점 1차로 바짝 쫓으면서 A조 본선 직행팀의 향방은 '안갯속'에 빠졌다.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에서 각 조 2위까지는 바로 본선에 진출한다. 3위는 플레이오프를 거쳐야 한다. 공교롭게도 한국은 본선 진출을 다투는 우즈베키스탄, 이란과 일주일 간격으로 안방에서 경기를 앞두고 있다. 한 경기라도 진다면 타격이 두 배가 되는 셈이다.

월드컵 예선 레바논전 골 장면



11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한국과 맞붙는 우즈베키스탄은 역대 전적에서는 한국에 1승2무8패로 약세를 보이지만 만만하게 볼 수 없는 팀이다. 현 국가대표팀에 세르베르 제파로프(성남) 등 '지한파'가 포진해있다는 점도 한국으로선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지난해 9월 대결에서 한국은 후반 12분 이동국(전북)이 역전골을 터뜨렸지만 2분 만에 다시 동점골

을 내줘 2-2로 비겼다. 이후 우즈베키스탄은 지난 3월 레바논과의 경기까지 최근 최종예선 3연승을 질주했다. 18일 울산 문수구장에서 열리는 이란과의 마지막 대결은 본선 진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란은 최종예선 6경기에서 3골밖에 넣지 못했지만, 그 골이 모두 승점 3을 안기는 결정골이었다. 실점은 2점에 불과하다. 지난해 11월 우즈베키스탄에 0-1로 달미를 잡으며 주춤했으나, 5일 '신예 해결사' 레자 구차네자드(스타다르 리에주)를 앞세워 카타르를 1-0으로 꺾어 희망의 불씨를 되살렸다. 한국에는 지난해 10월 0-1로 패배를 안긴 팀이기도 하다. 당시 한국은 이란에 밀리지 않는 경기를 펼쳤음에도 '원정 징크스'를 떨치지 못하고 0-1로 졌다. 최종예선에서 이긴 적 없는 상대와 '리전 매치'를 앞두고 대표팀이 레바논에도 끌려다닐 정도로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본선행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치우는 경기를 마치고 "운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이길 수 있는 경기였는데 아깝다.

2014 브라질 월드컵 본선진출 경위의 수

우즈벡 전 (11점)	이란 전 (10점)	한국 전 승점(11점)
승	승	5승 2무 1패(17점) ◎ 진출 조1위
승	무	4승 3무 1패(15점) ◎ 진출 조1위
무	승	4승 3무 1패(15점) ◎ 진출 조1위
패	승	4승 1무 2패(14점) ◎ 진출 조1위
승	패	4승 1무 2패(14점) ○ 유력 조2위
무	무	3승 3무 1패(13점) △ 혼조 조3위
패	무	3승 3무 2패(12점) △ 혼조 조3위
무	패	3승 3무 2패(12점) △ 혼조 조3위
패	패	3승 2무 3패(11점) △ 혼조 조3위

2014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A조 중간순위

순위	국가	승	무	패	골득실	승점
1	대한민국	3	2	1	+6	11
2	우즈베키스탄	3	2	1	+2	11
3	이란	3	1	2	+1	10
4	카타르	2	1	4	-4	7
5	레바논	1	2	4	-5	5

한국대표팀 경기결과

일자	상대	장소
2012년 6월 9일	카타르(4-1승)	서울
6월 12일	레바논(3-0승)	태هران
9월 11일	우즈베키스탄(2-2무)	타슈켄트
10월 17일	이란(0-1패)	타슈켄트
2013년 3월 26일	카타르(2-1승)	타슈켄트
6월 5일	레바논(1-1무)	울산

김주찬 '손목 골절'→신종길 투입→신종길 '햄스트링'→김주찬 조기 복귀→김원섭 '발목 인대파열'→신종길 1군 합류



KIA외야 부상 로테이션

외야의 부상 로테이션이 KIA를 웃고 울리고 있다. 올 시즌 KIA의 부상자 명단에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린 이는 FA 대어 외야수 김주찬이었다. 김주찬은 개막 4경기 만인 4월 3일 한화와의 경기에서 공에 맞아 왼손목이 골절되면서 병원 신세를 졌다. 갑작스런 공백엔 신종길이 있었다. 김주찬을 대신해 투입된 신종길은 강한 2번 타자로 맹활약하며 외야의 구세주로 떠올랐다. 하지만 신종길도 부상으로 주저앉았다. 지난 5월 15일 SK와의 경기에서 오른쪽 허벅지에 문제가 생기면서 신종길의 질주도 멈췄다. 김상현의 트레이드와 함께 이용규의 부진·신종길의 부상으로 외야에 비상이 걸리자 김주찬이 서둘러 그라운드로 돌아왔다. 지난 5월 31일 김주찬은 2군 경기에서 두 타석을 소화한 뒤 바로 1군에 합류했다. 외야에 또 다른 '김주찬 효과'가 기대됐지만 외야의 부상 로테이션은 멈추지 않았다. 이번에는 김원섭이었다. 초반의 부진을 털고 조금씩 부활 움직임을 보이던 김원섭도 부상에 발목이 잡혔다. 김원섭은 지난 2일 LG와의 홈경기에서 안타를 치고 나간 뒤 투수 견제를 피하다 발목을 접질렀다. 인대 파열 진단을 받으면서 6~8주 가량의 재활치료와 훈련을 거쳐야 그라운드에 돌아올 수 있다. 결국 김주찬-신종길-김원섭으로 이어지는 외야 부상 로테이션이 전개되면서 신종길의 복귀도 앞당겨졌다. 지난 4일 부상 이후 처음으로 롯데와의 2군 경기에 출전한 신종길은 5일 두 번째 실전경기를 치르며 최종 테스트를 받았다.

5일 톱타자와 우익수로 풀타임을 뛰면서 1군 합류가 최종 결정됐지만 이날 복귀를 앞두고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1회 상대 좌익수의 실책으로 출루한 신종길이 2번 유용목의 땅볼 때 진루를 하다 상대 수비수가 던진 공에 머리를 맞으면서 쓰러졌다. 충격으로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지만 별다른 이상이 없어 최종 테스트는 계속됐다. 5일 1군 선수단이 있는 부산으로 이동한 신종길은 6일 롯데엔 트레이에 등록돼 김원섭의 공백을 채울 예정이다. 신종길은 "공을 맞고 놀라기는 했지만 큰 이상은 없다. 두 경기를 뛰었는데 부상 부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아직 100% 전력질주를 하지는 않았다. 컨디션은 좋다. 타격감도 나쁘지는 않다"며 "타이머 어려울 때 부상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켜보지만 해서 마음이 좋지 못했다. 조금이라도 팀이 승리를 거두는 데 힘이 되고 싶다. 부상 없이 꾸준한 모습으로 남은 시즌을 보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오늘 KIA-롯데전 오후 2시 시작
 프로야구가 6일 한나 경기로 치러진다. 현충일인 6일 사직에서 열리는 KIA 타이거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를 비롯한 프로야구 4경기가 오후 2시 시작된다. 공중파 TV 중계와 프로야구 붐업 조성 차원에서 이뤄진 결정으로 KIA의 경기는 KBS 2TV에서 생중계 된다. 한편 KIA는 6일 경기가 끝난 뒤 목동구장으로 이동해 넥센과 주말 3연전을 치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FC 홈서 무패행진 이어 갈까

■ K리그 챌린지
 6일 부천·9일 경창청 선두권 진입 시험무대

광주 FC가 안방에서 무패행진을 이어간다. 광주 FC가 6일과 9일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각각 부천 FC와 경창청 축구단을 상대로 K리그 챌린지 12, 13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6일 오후 2시 맞붙게 된 부천은 지난 5월 5일 '광주 극장'의 제물이 됐던 상대다. 부천에 선제골을 내줬던 광주는 이내 동점골을 터트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뒤 후반 45분에 터진 투시오의 중거리 슈팅으로 승리 드라마를 썼다. 이 경기를 시작으로 광주는 이후 FA컵 포함 5경기에서 무패가도를 달리며 상위권 진입을 위한 발판을 다졌다. 부천의 찬스 메이커 임창균 봉쇄가 승리의 관건이다. 임창균은 173cm로 예소하지만 볼 컨트롤이 뛰어나고 정확한 침투패스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임창균의 발을 막는다면 공민현, 허건, 노태호 등 전방과 좌·우 공격수들의 위력을 반감할 수 있다. 부천의 느슨한 수비 조직력을 파고드는 게 광주의 공격 전략이다. 양 측면 깊숙한 곳에서 상대의 허점을 집요하게 파

고드는 김호남과 김준영, 과감한 중거리 슈팅이 일품인 투시오가 전력의 핵심. 문제는 중원의 공백이다. 지난 라운드 중간 MVP에 선정된 김은선이 경고누적으로 결장하게 되면서 미드필더 자리에 변화가 불가피 하다. 9일 오후 7시에 벌어지는 경창청과의 경기는 선두권 진입을 위한 시험무대다. 경창청은 압도적인 승점(25)으로 현재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지난 11라운드는 상주에 시종 첫 패를 당하면서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반면 광주는 득점포와 집중력이 살아나면서 연승행진 속에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지난 4월 28일 홈에서 가진 첫 맞대결에서는 광주가 0-2로 패했다. 수비 조직력이 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골 결정력 부족으로 번번이 찾아온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게 패배의 원인이 됐다. 한 달 여의 시간이 지나는데 광주 공격의 공격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투시오의 공격 본능이 깨어났고 김은선, 김준영, 박정민, 임선영의 골 감각도 무르익어가고 있다. 양동현-정조국-김영후로 구성된 경찰의 막강 공격진을 상대할 수비수들의 역할이 막중하다. 빠르고 정교한 패스워크로 경찰을 압박하는 게 주말 경기의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